정부 "방공구역 조정하자"… 中 "수용 못해"

한국 "이어도까지 포함 검토"… 갈등 양상

우발사태 방지 양국 핫라인 설치는 합의

국방부가 우리나라 해양과학기지가 설치된 이어도를 한국방공식별구역에 포함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26일 전해졌다. 중국과 일본의 방공식별구역에 포함되어 있는 이어도가 우리나라에서는 제외돼 있어 비판이 일고 있다. 사진은 해양과학기지 모습. /연합뉴스

중국이 일방적으로 선포한 방공식별구역(CADIZ) 관련한 한국과 중국의 마찰이 전면 갈등으로 양상으로 비화하고 있다.

정부는 28일 열린 제3차 한중 국방전략대화를 통해 중국 측에 방공식별구역 선포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우리측과의 중첩 부분 등을 조정해 줄 것을 공식 요구했다.

그러나 중국은 자국의 방공식별구역을 조정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밝혔고, 이에 대해 우리 측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확장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날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양국 군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방전략대화는 부드러운 분위기 속에서 시작됐지만 방공식별구역 조정 문제가 긴급의제로 다뤄지면서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측은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이 한국 방공식별구역과 중첩되고 이어도를 포함한 것과 관련, "사전에 협의가 없었다는 것은 매우 유감이며,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중국은 우리의 시정요구에 대해 "수용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우리 측은 "국익보호를 위해 한국방공식별구역 확장을 검토 중"이라고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은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 선포 이후 일본과 미국에 대해서는 강경한 태도를 일관했지만 한국에 대해서는 양자협의를 통해 풀어가자는 유화적인 모습을 그동안 보였다.

그러나 이번 국방전략대화에서 우리 정부가 강한 유감을 표명하면서 시정을 요구하자 한국에 대해서도 강경한 태도로 돌아선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이 방공식별구역 문제로 미국, 일본, 대만 등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의 방공식별구역 조정 요구만 수용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우리 정부는 방공식별구역 조정을 위해 양자 협의를 계속하자고 제안했지만 중국은 이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방공식별구역을 둘러싼 갈등이 동북아의 군사적 갈등을 고조시키는 변수로 급부상함에 따라 한중 간의 방공식별구역 갈등은 더 첨예해질 가능성이 커졌다.

우리 정부는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사전 통보 없이 이어도 상공에 군용기를 계속 보내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우리 해군과 해경의 항공기의 주 3~5회 이어도 상공을 초계비행하고 있어 중국이 이를 빌미로 전투기를 발진시킬 가능성도 있다.

다만, 이번 한중 국방전략대화에서 우발사태를 막기 위해 양국 국방부 간에 핫라인을 설치하기로 합의한 것은 성과로 꼽힌다.

군의 한 관계자는 "이번에 양국이 설치에 합의한 핫라인은 우발사태로 한중 간에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檢, 국정원 여직원 감금 민주의원 소환 통보

강기정·김현·이종걸에… 민주 "공안정국 조성용"

국가정보원의 대선·정치 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정회)이 국정원 여직원 감금 사건과 관련해 민주당 강기정, 김현, 이종걸 의원에게 소환을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강기정 의원은 28일 "어제(27일) 의원실로 연락이 왔다"며 "12월2일 출석하라는데 (출석은) 의논해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현 의원도 "12월3일 나오라고 어제 연락을 받았다"라며 "공식 소환장을 봐야 어떤 연유로 소환하는지 알 수 있겠지만 준비는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걸 의원은 "며칠 내로 나오라고 검찰에서 연락을 받았지만 갈 수 없다고 대답했다"라고 말했다.

앞서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는 민주당 당직자들이 지난해 12월11일 저녁 서울 역삼동에 있는 자신의 오피스텔로 찾아와 감금했다며 관련자들을 경찰에 고소했다.

당시 민주당 관계자들은 국정원 심리전단의 조직적 대선 개입 의혹을 제기하며 김씨의 오피스텔 출입문 앞에서 김씨에게 컴퓨터 제출을 요구했다.

검찰의 소환 통보에 대해 민주당은 "공안정국 조성을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전대미문의 국기문란 사건인데도 우리 의원들을 소환하는 것은 특검을 회피하려는 물타기이고 야당 탄압"이라며 이같이 밝히면서 "정권의도대로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대법, '공천헌금' 한화갑 무죄 확정

최인기 전 의원 등 4명도 무죄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8일 지난 2006년 도의원 비례대표 후보 추천과 관련해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최인기 전 민주당 의원, 유덕열 서울 동대문구청장, 정치자금을 기부한 박부덕·양승일 전 전남도의원도 원심대로 무죄가 확정됐다.

한 전 대표는 민주당 대표 시절인 2006년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전남도당 위원장이던 최 전 의원, 당시 민주당 중앙당 조직위원장이던 유 구청장 등과 함께 전남도의회 비례대표 후보로 추천된 박씨와 양씨로부터 공천헌금(1인당 3억원) 명목의 특별당비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피고인들 사이에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 공천과 관련해 특별당비를 낸다는 의사가 표시됐다고 단정할 수 없고, 특별당비 기부가 비례대표 후보 추천에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연합뉴스

"예산안 통과 안되면 경제 타격·국민 고통"

朴대통령, 국민경제자문회의서 언급

박근혜 대통령은 28일 "만약 내년도 예산안과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되면 막 살아나고 있는 우리경제에 타격이 되고 국민들의 고통도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홍릉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제3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기업들의 각종 투자 계획들이 물거품이 되고 서민을 위한 행복주택 사업과 같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들도 추진될 수 없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제언들이 빛을 발하려면 앞으로가 정말 중요하다"며 "지금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고 적시의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법안들과 내년도 예산이 하루빨리 국회를 통과돼야 하는데 걱정"이라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서비스산업 발전과 관련, "서비스산업은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분야다. 한류문화가 아시아를 넘어 세계로 확산하고 있는 점이 우리 서비스산업의 잠재력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나 "중요성과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우리 서비스산업은 발전이 뒤쳐졌다"며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국내 시장만 볼 것이 아니라 넓은 세계시장을 목표로 서비스 시장도 과감한 혁신과 실용적인 접근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비스산업 전반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교육 · 관광 · 의료 등 부가가치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체감효과도 크고 사회적 합의가 비교적 쉬운 과제에서 선택과 집중을 하는 전략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KDI가 자문위원들과 협업해 준비한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현장사례조사 및 정책제언'이 보고됐다. /연합뉴스

태풍에 여객선 운항 안해도 지원금 4억 지급한 신안군

신안군이 태풍으로 배를 운항하지 않았는데도 여객선 야간운항 지원금 4억2000여만원을 선사에 지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전남도는 "최근 신안군에 대한 감사를 통해 여객선 야간운항 지원금 부적정 등 97건 적발, 41억원의 재정상 조치를 내리고 6명 징계했다"고 밝혔다.

감사에 따르면 신안군은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7개 선사에 여객선 야간운항 보조금 61억여원을 지급했지만 태풍, 풍랑 등 기상악화로 운항을 하지 않았는데 선사로부터 4억2000만원을 되돌려받지 않았다.

또 군청 공무원 5명은 군의 보조금 지원단체로부터 2000여만원을 지원받아 해외 여행을 다녀왔다가 적발됐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광주시 대변인 공모

광주시는 "대변인을 개방형직위로 공개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응시를 희망하는 사람은 구비서류를 준비해 오는 12월10일부터 16일까지 광주시청 3층 총무과에 직접 접수하거나 우편(등기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대변인의 임용예정 직급은 경력직공무원 4급 또는 계약직공무원 개방형 4호이며, 채용기간은 2년으로 근무실적에 따라 5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광주시는 29일부터 오는 12월9일까지 모집공고를 한 후 12월10일부터 16일까지 응시원서를 접수, 12월 말 임용할 계획이다.

한편, 현 유종성(4급) 광주시청 대변인은 조만간 명예퇴직을 한 뒤 이번 개방형직위 공개모집에 도전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배기운 의원, 국감 친환경 베스트 의원에

환경정보연구센터 선정

민주당 배기운 민주당 의원은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으로서는 유일하게 한국환경정보연구센터가 선정한 '2013 국정감사 친환경 베스트 의원'에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

배 의원은 "국민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하는 환경정보연구센터의 베스트 의원 선정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전 세계적 관심분야인 농업 및 해양 환경 보호와 개선에 더욱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사)한국환경정보연구센터는 6개 상임위 각 감사위원에 대해 국감 준비정도, 정책대안의 심층도, 지속가능성, 국가균형발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19명의 의원을 베스트 의원으로 선정했다. /박지경기자jkpark@kwangju.co.kr

나주 혁신도시 · 강변도시
남다른 부동산 투자법!
매물을 팔려는데!?
매물을 사려는데!?
고객 여러분의 고민을
솔로몬 부동산이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상업용지 / 근생용지/ 점포주택지 / 주차장용지
바로 지금이 기회!!
나주 혁신도시 전문
나주 솔로몬 공인중개사
☎ H. 010-5587-3080 / 010-3505-8005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리 354-32(우정사업본부 후문 방향)

부동산 성공 투자
하늘땅 공인중개사 가 함께합니다
상가/건물
* 첨단 월계동 LC타워 2층 상가 960㎡ 매 18억(분할 매매 및 임대 가능)(대형병원,학원,프렌차이즈 적합)
* 교원공제부근 1층상가 225㎡ 매 12억3천(보1억3천,월600만 포함)유명프랜차이즈 입점 중
* 서구 아파트상가 1,800㎡(점포 7칸) 매10억 (보 1억1천, 월610만, 융5억9천 포함)
* 사우나건물(8층) 17억5천(보8천,월800만 대출 9억5천),직영 월천만수입
* 도천동 신축창고 대지2,500㎡,건평500㎡ 17억
* 벽진동 창고,고물상용지 2,900㎡ 임대 보2천/월200
대지/전답
* 상무지구 대지 405㎡(122평) 매 8억5천
* 용전동 전(자연녹지) 1,180㎡ 매5억3천
* 완도 약산 전(계획관리) 11,000㎡ 매 8억4천
* 장흥 용산면 전,임야 101,851㎡ 매 6억
* 남평 우산리 전(계획관리) 17,000㎡ 매 5억2천
기타
* 영암 삼호종공업인근 주유소 매 9억(대출 5억)
* 곡성 목사동 식당 1,750㎡ 매 3억9천(급매,조정가)
* 담양 월산면 가든식당 1,520㎡ 매 3억8천
광주,전남권 매도·매수 상담,접수 환영
부동산 투자의 새로운 패러다임
하늘땅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5536-0382 Fax 062) 974-0449

금당공인중개사
매매·교환·설계·시공등의 물건을 구합니다.
투자·감정가 이하
◦ 화순읍 군청 민원실 인근 대로변 2종 주거지 492㎡(149) 은행2억 감정 3억6천에 매도, 조정가능
◦ 용산동 재개발지역 주택 대지 40평 은행 4천 매도 8200
◦ 충장로5가 버스도로 대지777㎡(235) 공시지가 17억7천선 오피스텔, 상가개발적합 10억2천
◦ 함평군 영업 잘되는 여관 대지 320평 건평211평 객실 21실 대출4억 교환도 가능 8억8천
◦ 대인동 소방도접 상업지역 786㎡(238) 오피스텔·생활주택·다세대적합 금남로 5가에 있음 9억2천
◦ 대인동 4층 식당 건물 대지 149평 은행6억4천 매도8억
◦ 광산구 신창동 6차선과 4차선 도로 코너 대지302평 건물은 4층 715평 사옥, 병원, 요양시설, 종교시설 적합 은행 18억2천 전세3억에 월 1600선 수익 증축도 가능 33억
◦ 조선대학교 앞 대로면 동명동 5층건물 대지318㎡(96)건평 736㎡(228) 상가와 주택 있고 원룸15개 투룸3개 보증금 1억2천에 월 500선 수익 매도 9억6천
◦ 순천시 가곡동 상업지 177평 대출 3억2천 매도 3억6천
◦ 북구 두암동 싸우나 건물 대지 101평 건평300평 목욕탕은 직영하고 상가는 보증금 4500만원 월150선수익 은행2억5천 매도 8억
◦ 금남로 3가 부근 식당 대지 62평 건평 128평 5억5천
매도·임대
◦ 매도, 수기동 상업지역 705㎡(213) 원룸·투룸·쓰리룸 92개 허가, 주택기금 12억가능, 투자에 적합 7억2천
◦ 임대·매매, 쌍촌동에 신축중인 가도생활주택 2차 건물 호텔급 시설의 풀옵션 9평형 주택, 입주는 12월 임대는 전세1000에 월 40선, 매매는 6300만원(대출 3천만원 포함)투자자는 여러개를 매입해서 임대하면 수익성이 매우 좋음.
☎ 문의 222-4994, 010-2632-5659
쌍촌동 (구) 등기소 자리, 가도 생활주택 전시관

다와부동산 재테크컨설팅
㈜다와옥션컨설팅부, 매수신청대리업체(법원인가)
근린시설입찰에서 명도, 등기, 양도신고까지(무료상담)
근린시설
▷동구 지산동 준주거 3층근린 대지241㎡ 건평307㎡ 감정가4억
▷광산구 쌍암동 일반상업 숙박시설 대지1760㎡ 건평2821㎡ 감정가46억 최저가26억
▷나주시 송월동 상업지역 6층상가 대지545㎡ 건평2309㎡ 감정가13억 최저가7억
단독주택
▷북구 장등동 전원주택 대지763㎡ 건평137㎡ 감정가1억8천만
▷북구 운암동 2층단독주택 대지149㎡ 건평161㎡ 감정가1억 최저가7천만
▷나주시 남내동 2종주거 2층주택 대지319㎡ 건평297㎡ 감정가2억3천만 최저가1억3천만
공장및창고
▷북구 대촌동 창고및대지 토지2800㎡ 건물303㎡ 감정가11억 최저가8억
▷광산구 용동 일반공업 2층공장 토지3305㎡ 건물2711㎡ 감정가30억 최저가17억
▷강진읍 송덕리 냉동,저온창고 토지33650㎡ 건물11762㎡ 감정가94억 최저가27억
토지매매
▷동구 내남동 1종주거 전원주택부지 주거환경최상 대지750㎡ 상담후 가격조정
▷무안군 해제면 덕산리 관리지역 전,임야 3642㎡ 매매3,500만
▷광산구 지평동 자연녹지 대지,전 2115㎡ 매매5천만(조정가)
☎ 문의 010-4911-4989
(팩스 062-226-3607)

영천 부동산
상가건물
대지·임야
전원주택·묘지
급히 파실분
부동산을 급히 팔거나, 임대를 원하시면 저희 영천부동산으로 오십시오. 빠른 시일내에 매매·임대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밀보장
매수자·매도자·매도물건에 대하여 비밀보장하여 드립니다.
▶전남여고 건너편◀
영천공인중개사
010-4610-3763
062)222-5105